

學會創立 40周年을 맞이하여



高明三
大韓電氣學會長

解放과 더불어 불어닥친 여러가지 混亂의 틈바구니속에서도 뜻있는 電氣界人士 108名은 解放된 조국의 電氣技術과 學問을 발전시키고져, 1948年 7月 9日 한자리에 모여 오늘의 大韓電氣學會의 前身인 朝鮮電氣學會(會長 尹日重)를 發足시켰습니다. 그후 이를 起點으로, 해를 거듭할 수록 더더욱 質的量的으로 발전한 결과 今年에 學會創立 40周年이라는 영광된 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949年 3月 5日 大韓電氣學會로 개칭된 본 學會는 지난 40年間 電氣工學에 관한 學問的 基礎確立과 應用技術의 開發 및 最新技術情報의 보급등 여러 分野에서 좋은 成果를 거두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會員相互間의 친목과 學問發展을 위한 討論의 廣場을 제공함으로써 學會에 대한 產業界의 요청을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그 結果 본 學會는 電氣界의 技術者와 學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產業界 내지는 社會全體에 직접간접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고 봅니다.

1970년부터 시작된 夏季產學協同全國學術大會와 1975년부터 組織發足된 研究會의 活動은 學會基本機能의 하나인 論文發表와 學術討論의 機能을 정상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 活動範圍는 특정전문분야의 심포지움을 통한 專門知識의 國際的인 교환도 실현시킴으로써, 착실한 學術活動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7月 浦項工大에서 개최된 電氣·電子工學學術大會에서는 論文 408편, 參加者 1,400余名이라는 國內 最大最高의 學術大會가 되었음을 본인은 會員여러분과 함께 크게 自負하고 싶습니다.

한편 1982年 7月부터는 會誌와 論文誌를 每月 發刊함으로써 廣範圍한 電氣工學分野의 論文과 最新技術解説을 지체없이 게재하였습니다. 특히 論文誌의 게재 論文편수를 今年부터 9편으로 증가함으로써 論文提出부터 發刊까지의 時間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으며, 電氣工學의 모든 分野를 조감할 수 있는 電氣工學分野의 종합학술지로 발전할 수 있는 機能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난 40年間の 업적은 5,000名이상의 會員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勞力, 學會를 財政적으로 지원해주신 106個社에 달하는 特別會員社의 支援, 그리고 시종일관 學會運營에 헌신적으로 勞力하신 學會의 任員陣과 會務에 전념한 事務職여러분들의 勞力의 結果임을 강조합니다.

지금 본인은 電氣學會 創立40周年을 맞이하면서 電氣學會의 오늘의 榮光된 모습을 만드신 모든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져 합니다. 앞으로 學會活動의 壯年期라 할 수 있는 尙后 10年間, 學會가 展開시켜야 할 活動과 展望에 관한 本人의 小考를 제시하고져 합니다.

최근 尖端技術이라는 용어는 技術者뿐만 아니라 爲政

앞으로의 學會活動은 보다 더 세분화된 테마로 나뉘질 것은 불가피하겠으나 micro化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는 인접學會 혹은 다른 전문분야와의 교류를 통한 macro化 내지 水平的인 통풍효과를 얻을 수 있는 노력이 요청됩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기술 혁신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다 빠르고, 보다 효율이 좋은 정보교환의 광장을 마련하는데 學會는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者들의 입에서도 자주 오르내리는 流行語가 되었습니다. 즉 microelectronics, 光技術, biotechnology 및 新素材技術은 秒進分步의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들 技術의 영향으로 전기공학기술의 첨단화 역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술 즉 21세기를 향한 과학기술의 특징은 첫째, 종래의 個別學問分野의 成果라기보다 서로 다른 分野의 專門知識의 융합된 學際的인 研究에 의해서만 그 成果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며, 둘째는, 機械 및 情報의 시스템화 및 自動化로 인하여 人間과 科學技術의 境界面이 그 어느때보다 더 중요시 된다는 사실입니다.

現代科學技術의 특징을 이상과 같이 前提한다면, 電氣工學을 비롯한 모든 學問의 專門性은 더욱더 高度化 되어야 하는 동시에 專門領域을 상호 접속시킴으로써 보다 훌륭한 研究成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尙尙10年間 즉 尖端技術時代에서 學會가 指向하여야 할 二律背反的인 性質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항상 學際的이고 創造的인 mind를 가지고 인접분야와 trade-off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學會活動은 보다더 細分화된 테마로 나뉘질 것은 不可避하겠으나 micro化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는 인접學會 혹은 다른 專門分野와

의 交流를 통한 macro化 내지 水平的인 通風效果를 얻을 수 있는 노력이 요청됩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技術革新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다 빠르고, 보다 效率이 좋은 情報交換의 廣場을 마련하는데 學會는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社會와 會員들의 여러가지 요청에 신속하게 對應하기 위하여는 事務自動化 및 委員會中心의 活動體制가 보다 效率的으로 整備運營되어야 하겠으며, 會員倍加運動과 學會活動의 先進化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諸般課題의 해결은 正會員 및 特別贊助會員 여러분의 協力과 助言 그리고 任職員여러분들의 보다더 獻身的인 努力에 의해서만 可能하다고 봅니다.

本人은 우리 電氣學會가 모든 會員들의 共有財産으로서 앞으로 크게 成長하여 會員여러분들의 利益을 위하여 存在함과 동시에 社會의 發展과 人類의 幸福에보다 더 尤效한 役割을 수행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電氣學會 創立 40周年을 맞이하여 電氣工學의 보다 밝고 希望찬 未來를 여러 會員들과 더불어 함께 創造할 수 있게 되기를 期待하며, 모든 會員들의 健康과 發展을 祈願합니다.

1987年 7月 9日